



업체 탐방
(주)가람

카본 · 세라믹 단열재의 선두주자 가람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완전국산화 성공

글/박정선 기자

지난 78년 가람카본이라는 상호로 시작, 카본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 온 (주)가람(대표이사 박성훈)이 카본제품에 있어 70%를 국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을 정도의 내실있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가람은 90년 Morgan Group의 Thermal Ceramics와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Kaowool Ceramic Fiber를 생산해 왔다.

이를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SK, LG, 한국중공업 등에 공급하고 있는 가람은 국내는 물론 호주,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수출을 통해 Kaowool Ceramic Fiber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가람은 G7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라믹 사업본부장을 비롯, 총 4명의 인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6년간 이주대학교 환경연구소, 명지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개발에 지속적으로 전념해 왔다.

6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한 현금, 현물투자를 이뤄 온 가람은 국내에서 필터제조 설비 제작업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미 명지대학교와 공동으로 필터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개발해 제조기술 설비와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다.

또한 최근에는 이주대, 명지대, 한양대 등과 함께 차세대 집진필터를 개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필터의 경우 2백50도 이상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집진 설비 앞 공정에 냉각장치 및 열교환기를 이용해 열을 냉각한 후 집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세라믹 필터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돼 6백도에서 2년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사의 세라믹 필터 우수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박성훈 사장은 이 뿐만이 아니라 고온 공정 배출 먼지를 강제 냉각없이 집진해 고온 청정 공기를 난방, 건조 공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강제 공정이 불필요 하기에 설비의 면적과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빠트리지 않았다.

가람이 개발한 필터는 석유화학, 제철, 제지 그리고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이용해 6백도에서 장시간 성능시험을 마쳤으며 0.3 μ m 입자에서 99.7% 이상의 집진효율과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고온 집진기 설계 제작 및 운전 기술을 확보했다.

세라믹 필터는 기존 섬유형 여과 집진기에 비해 3배 이상의 여과속도로 집진 가능해 설치면적과 설치비를 각각 50%와 30%를 절감할 수 있어 향후 고온 배출가스 공정인 유리, 시멘트, 비철금속, 소각로 등의 제조공장에 경제적인 집진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람에서 개발한 세라믹 필터는 독일, 영국 등 선진 국가에서 제조되는 필터와 동등한 성능을 갖고 있어 향후 국내 시장은 물론 국외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회사의 세라믹 필터는 기존의 백필터나 전기집진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상기 집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이용하게 되면 설치면적을 40%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 2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이 필터는 수명이 다된 후엔 분쇄한 후 산업용 단열재로 재사용 할 수 있으며 폐기시엔 기존의 필터와 유사해 경제적으로나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그 우수성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가람은 세라믹 고온 집진 필터 제조방법과 설비에 대해 5건의 특허 등록과 3건의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대구 달성공장에 양산 설비를 갖추고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국내에는 현재 5~6곳의 업체가 세라믹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입품은 실용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 수입품의 경우 개당 가격이 15만원 정도를 웃돌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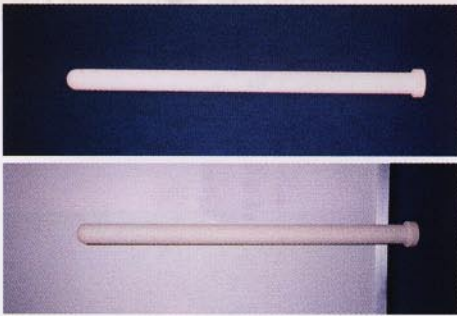


대만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98년 100PPM 품질관리 기준을 획득한 (주)가람

“
가람의 세라믹 필터는
불연성 소재로 제작돼 6백도에서
2년이상 연속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주)가람에서 생산하고 있는 Ceramic Filter



박성훈 사장

회사연혁

- 1978년 가람카본(주) 설립
영국 MORGANITE ELECTRICAL LIMITED와 기술제휴
- 1979년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 지정(상공부)
- 1982년 중소기업 근대화 실천계획 승인업체(중소기업진흥공단)
- 1985년 유망중소기업 선정(한국기술연구소)
- 1988년 제 2공장 준공(경북 달성공단)
- 1989년 상공부 계열화 업체 지정
- 1990년 제 2공장 증축 및 세라믹 신소재 개발업체 개시
미국 THERMAL CERAMICS와 기술제휴
주식회사 가람으로 상호변경
CARBON BRUSH, SPECIAL CARBON, CERAMICS 신소재
부품개발 품목 지정고시(상공부)
- 1992년 제 1공장 및 제 2공장 통합및 확장
한국 내화물 협동조합 가입
- 1994년 '품 자 MARK' 획득(공업진흥청)
- 1996년 독일 SGL사와 합작으로 GRAPHITE 열교환기 사업부 신설
ISO 9002 인증(한국생산본부)
- 1997년 세라믹공장 증축 완공
- 1998년 100PPM 품질관리기준 획득

반해 국산품은 7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관리, 유지면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수입품을 그렇게 선호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는 박사장은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조차 수입품을 쓰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하루 빨리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이라고 강조하는 박성훈 사장은 흉내만 내는 식의 개발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성훈 사장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미국, 영국, 브라질 등과 서로 주기적으로 방문, 기술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카본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람은 최고의 품질, 최대의 시장점유율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 회사는 78년 카본 분야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Morganite Electrical Carbon Limited와의 기술제휴, 세계 40여개국과 1백50여개 Morgan 계열사와의 상호 기술교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교류, 오랜기간의 노하우 축적 등으로 가람의 기술은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가람의 제품이 수출되고 있어 가람의 활약상이 앞으로도 기대될 뿐이다. ■